

## “자연에서 건강하게”...대관령 초지서 한우 100여 마리 순환 방목 시작

- 대관령 한우연구센터, 10월 말까지 대관령 초지에 순환 방목
- 해발 800m 고지대...친환경 축산 및 스트레스 없는 사육 환경
  - 한우 건강 관리, 생산성 향상 연구 지속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5월 26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한우연구센터 내 약 260헥타르(ha) 규모 초지에 암소 100여 마리를 방목했다.

해발 약 800m 고지대에 위치해 여름철에도 비교적 서늘한 기후를 유지하는 대관령 초지는 한우 암소를 방목하기 알맞은 환경이다. 대관령 한우연구센터는 매년 5월 말부터 10월까지 한우 암소 방목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방목한 한우 암소는 10월 31일까지 약 5개월간 넓은 초지에서 생활하며 신선한 목초를 섭취한다.

방목은 비타민 에이(A) 생성에 도움 되는 베타카로틴을 풍부하게 흡수할 수 있고, 평소보다 운동량이 늘어나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있다.

한우연구센터는 초지 훼손을 줄이고 목초 재생을 돕기 위해 구획 별 순환 방목 방식을 택하고 있다. 순환 방목은 티모시와 톨페스큐 등 다양한 목초가 섞여 있는 초지를 나누어 한우를 이동시키며 방목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통해 대관령 초지의 다양한 목초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한우 생산성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방목 기간에도 한우의 영양소 요구량을 고려해 배합사료를 함께 급여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급수 시설을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그늘막과 울타리를 수시로 점검해 가축 안전을 지키고, 야생동물 침입 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센터 윤호백 센터장은 “대관령 초지를 활용한 방목 사육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우 건강 관리와 생산성 향상 연구, 초지 활용 기술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2026년 한우연구센터 방목 행사 개요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센터	책임자	센터장	윤호백 (033-330-0601)
		담당자	연구사	문성진 (033-330-0694)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 □ 추진 배경

- 한우연구센터는 해발 약 800m 고지대에 위치해 여름철에도 서늘한 기후를 유지하고 있어 방목 사육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음
- 방목은 번식우의 건강 증진, 스트레스 저감, 번식능력 향상 및 사료비 절감 효과가 있어 매년 실시하고 있음

### □ 일 정

- 방목 기간: 2026. 5. 26. ~ 2026. 10. 31. (약 150일간)
- 방목 대상 : 한우 암소 100여 두
- 방목 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한우연구센터 초지

### □ 주요 내용

- 티모시, 톨페스큐, 클로버류 등 다양한 목초가 혼파된 약 260ha 규모 초지 활용
- 초지 훼손 방지와 목초 재생을 위해 구획별 순환 방목
- 생초 섭취를 통한 베타카로틴 공급과 햇빛 노출, 운동량 증가로 번식우 건강 증진 기대
- 영양소 요구량을 고려한 배합사료 보충 급여 및 상시 급수 관리 실시
- 그늘막과 목책, 외곽 울타리 점검을 통한 가축 안전관리 추진
- 방목 사육을 통한 사료비 절감과 친환경 축산 실현 기대